

그들에게서 큰 별을 본다

안 정우페로니카 | 수녀 · 부산 아이들의 집 · 특수교육 전공

하느님이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으니(요한 3, 16).

성탄이 다가오면 교회는 많이 술렁거린다. 주년 전례의 시작인 대림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일깨워 주는데 세상의 여러 볼 거리와 흥미거리들은 자꾸 교회 바깥으로 눈을 돌리게 한다. 마음 움직이는 대로 시선도 머물 것 같은 12월에 선생님들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을까?

3월 초에 어리둥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아이들이 이제는 성당 마당을 뛰어다니기도 하며 제법 기도하는 흉내도 낼 것이다. 몸이 성치 않은 아이들이라 잔병치레도 많이 하고 감기에 걸려 몇 주씩 주일학교에 못 나오기도 하지만 유난히 성탄 즈음에는 아이들이 많아진다. 이럴 때 아이들에게 따뜻이 대해 주자.

또, 주일학교에서 예술제를 한다면 우리 아이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악기 연주, 노래, 춤 등 뭐든 함께함으로써 성취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이야기 성서 들려 주기

1. 흥미 끌기

준비물 : 드라이아이스, 물, 부채, 드라이아이스 담을 그릇, 그릇 가릴 색지.

- ① 학생들이 조용히 앉기를 기다린다.
- ② 조용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가 왔음을 말해 주면서 교실을 어둡게 한다.
- ③ 물을 담아 놓은 그릇에 드라이아이스를 넣고 학생들에게 안개를 보여 준다.
- ④ 손으로 잡거나 만질 수 없는 안개처럼 눈에 띄지 않게 예수님을 기다렸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음을 설명해 주며 대림초에 불을 붙인다.
- ⑤ 조용한 음악을 틀어 주고 그림과 함께 성서 이야기를 들려 준다.

2. 말씀 듣기(마태 2, 1-12)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생일잔치에 이웃 나라 동방박사들을 초대하셨어요. 하느님의 초대장은 하늘에 반짝이는 큰 별이었지요.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하느님의 아들이 태어나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드릴 선물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 갔어요. 동방박사들은 큰 별을 따라 오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림 · 백지혜 실비아

“아기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지만 아무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몰랐어요.

그 날 밤, 동방 박사들은 다시 큰 별을 따라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아기 예수님은 작은 마구간에 누워 계셨어요. 동방박사들은 준비해 온 선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답니다.

3. 피드백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어떤 마을이었나요? 아주 큰 도시였나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어떻게 알았나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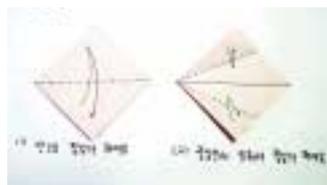
4. 기도해요

하느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만 생각하며 하루를 보낼래요.

작업

준비물 : 빨간색 색종이 1/4로 자른 것 2장, 검정색 색종이, 초록색 색상지, 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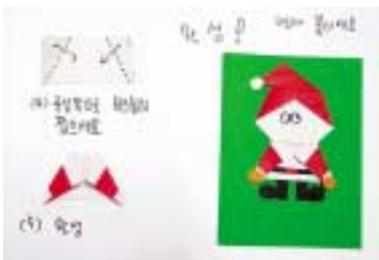
- ① 초록색 색상지를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
- ② 제시된 그림대로 색종이를 접는다.
- ③ 초록색 카드에 붙인다.
- ④ 예수님께 편지를 쓴다.



얼굴



옷



교사들은 학생들이 예수님께 하고픈 말이 무엇인지 물어 본 후 연습지나 칠판에 글로 써주어 직접 카드에 옮겨 쓰도록 배려해 줍니다.

정성스럽게 쓴 편지는 모두 모아서 다음 미사시간에 예수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더 좋을 듯합니다.

정리

친구들, 이제 대림이 지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성탄이 됩니다. 큰 별이 동방박사를 인도하였듯이 우리 친구들이 세상의 큰 별이 되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도록 우리 많이 기도해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큰 별을 볼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고 사랑이십니다.

대림 시기 잘 보내고 기쁜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 사랑을 나눠 주려 갑시다.



아이들을 만나 사랑을 주고받고 싶을 때는 카세트를 끄자.

- 귀를 통해 많은 정보가 뇌세포에 쌓인다.
- 눈을 통해 많은 정보가 뇌세포에 쌓인다.

이 두 기관은 다양한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컵을 직접 보여 주면서

‘이게 컵이야.’라고 말하는 것과 컵을 보여 주지 않으면서 ‘컵’이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다르다.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카세트를 통해 들려 주는 것 또한 오히려 언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엄마, 아빠, 가족의 목소리 즉, 사람의 목소리이다. 자연스럽게 많은 얘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발달이 지체된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녹음된 소리를 마구 들려 주는 것은 오히려 언어 발달에 해가 된다. 카세트를 끄고 교사와 엄마의 실제 목소리를 들려 주자.

비디오, 텔레비전을 끄자

뇌가 발달되기 위해서는 자극이 있어야 한다. 자극은 능동적 자극과 수동적 자극으로 나눌 수 있는데 능동적 자극은 의지로 인한 뇌 자극이고 수동적 자극은 눈, 귀, 코, 혀, 온 몸의 피부 등 신체 기관에 의한 자극이다. 이 자극들은 뇌세포를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뇌세포에 기억을 형성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느낀 것을 기억하고 생각한 것을 기억한다.

특히 유아 발달에선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능동적 뇌 자극과 수동적 뇌 자극이 함께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비디오, 텔레비전 등은 일방적인 자극으로 일방적인 기억을 만든다. 그래서 이것들에 노출된 아이들은 무의미한 언어 활동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혼자 중얼거린다든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든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쌓인 정보는 사용하는 데 제한을 받는데, 발달이 미숙한 아이들에게 비디오나 텔레비전은 이해하지 못한 정보를 뇌에 기억시키는 일을 한다. 그래서 아이들의 발달은 더욱 지체되고 온전치 못한 정보는 아이의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언어 발달, 행동 발달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 부모가 자주 어울려 구체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주어야 한다.

변화에 대한 저항, 고착화 이렇게 해결해 봐요.

정신의 범위는 뇌세포의 활동 범위가 결정한다. 뇌세포의 활동 범위는 행동의 범위, 언어의 범위를 결정한다. 그래서 뇌에 손상을 입으면 행동과 언어에 제한이 생긴다. 뇌의 발달이 지체되어도 마찬가지이다. 뇌의 발달이 지체되면 뇌가 폭넓은 기능

을 발휘하지 못하고 언어와 행동에 제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다. 뇌세포들 간의 상호작용 제한은 좁은 정신을 만들고 좁은 정신에 의해 만들어지는 행동은 좁은 행동일 수밖에 없다.

이래서 자폐증으로 판정받은 아이들은 변화에 대해 저항하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고착화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문제 행동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정신과 뇌 그리고 신체는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뇌세포 활동의 범위를 넓혀 주면 정신의 범위가 넓어지고 이로써 행동의 범위가 넓어져 위와 같은 문제 행동이 사라질 수 있다. 아이들은 계속 발달하고 자라고 있으니깐. 다양한 신체기관의 활동은 다양한 뇌세포의 활동으로 이어지고 다양한 신체 활동은 다양한 정신 활동이 되는 셈이다. 눈의 다양한 활동, 귀의 다양한 활동, 코, 입, 혀, 신체 각 부위의 다양한 활동들은 자폐증으로 판정받은 아이들이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좁은 사고의 틀을 벗어나게 도와 준다.

다양성이 갖는 심리발달적 의미를 적용한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이의 장애가 결코 걸림돌만으로 머물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자폐증은 없다」(정인태 지음, 푸른녘), 「자폐증은 치료 된다」(정인태 지음, 유아마음)에서 발췌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의 노래 가사처럼, 우리 학생들 안에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이끌어주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믿고 따르는 지혜로움이 더 많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작은 친절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된다면, 그들의 존재는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케 하는 또 다른 큰 별인 것이다. ✨